

새만금 한중FTA산단 특화방안 마련

오늘 바이오뷰티산업 육성정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테마파크 기능 도입 등 논의

새만금 내 한중 FTA 산단에 대한 특화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전북도는 26일 새만금 내부개발 기공제로 작용할 국내 유일의 새만금 한중 FTA산단 성공적 추진을 위한 차별화 방안으로 바이오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한중 FTA 산단 특화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형규 정무부지사 주재로 바이오화장품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기관인 산업연구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제도개선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바이오화장품 R&D센터 구축과 바이오화장품 시험분석센터 구축 등 바이오뷰티 테마파크 기능을 도입하며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화장품소재 생물자원 DB구축, 해양 바이오 소재 R&D지원 등 바이오뷰티 융·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제도개선사항으로 국내 화장품 인허가제도의 글로벌 표준화, 중국 및 주요 수출국 유통구조 대응방안 마련, 한중 산단 내 화장품 수출입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이 제안

될 계획이다.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도는 바이오 산업과 연관된 40개소의 연구기관과 농생명·바이오분야 산업기반과 우수한 R&D 융복합 인프라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바이오뷰티산업은 새만금은 물론 전북의 모든 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연구 용역을 해 줄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고민형 기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현황

도내 시군 전국 1~3등 차지

전주·김제·남원시 각각 1·2·3위... 맞춤형 정책 효과

도내 각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1만6,744명이 지원, 다문화마을화당운영(한국어 교육), 맞춤형 취업 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들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사업', '문화교육지원사업' 등을 발굴하여 환경 변화에 맞는 정책 시행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정책 만족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기존 정책들을 더욱 내실화하면서도 결혼이민자 맞춤형 시책 발굴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사회적 일자리 창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의 시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및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택 도 대외협력국장은 "이러한 성과는 그간 전라북도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함께 노력하여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와 지역사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가 선진적인 다문화정책 일선지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현장시청 5호 '전주푸드지원사무소' 출범

친환경농업·전주푸드팀 통합지원센터로 옮겨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현장시청 5호로 '전주푸드지원사무소'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주시는 25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농업 관련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시청 '전주푸드지원사무소' 현판식을 가졌다.



현장시청 5호 전주푸드지원사무소 현판식이 25일 전주종합경기장 옆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층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과 농업,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

전주푸드지원사무소는 전주시가 다섯 번째로 설치한 현장시청으로, 그간 시 본청에서 근무하던 친환경농업과 전주푸드팀 직원들은 종합경기장 옆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옛 전교조 전북지부 건물) 현장시청으로 일터를 옮겨 갔다.

현장시청 전주푸드지원사무소가 설치된 것은 지난 6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현재 위치에 동지를 들고 전주종합경기장 내에 전주푸드 직매장 3호점을 개설되는 등 전주푸드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농민과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전주푸드지원사무소는 앞으로 농가 조직화를 통한 품목 발굴 및 출하 농가 확대, 농업인(여성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전주푸드 창업아카데미 개설, 지역단위 협동경제 공동체 대상 자 발굴 및 확산 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농민들의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복지급식 등에 전주푸드 제품을 확대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농민과 시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전주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장시청은 민선6기 전주시 주요공약사업으로 '시장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장에 있다'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평소 지

론이 반영된 사업이다. 현장시청은 현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행정조직이 직접 나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전주푸드 지원사무소 설치로 5개의 현장시청을 운영키로 한 공약사업을 마무리 짓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제1호 현장시청인 한옥마을사업소를 시작으로 기업지원사무소, 한문화지원사무소, 전통시장육성지원사무소를 현장으로 내보냈으며, 현장시청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한옥마을사업소에서는 한옥마

을 차 없는 거리를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추억의 놀이터를 조성했으며, 2호 현장시청인 기업지원사무소에서는 해태제과 미사용 공장부지를 CTS에 중개하고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SK어패럴을 입주시켰다.

3호 현장시청인 한문화지원사무소에서는 한국전통문화전당 내 공방운영자와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고 공동소방백제 및 공예트렌드 페어에 참가, 가뭄축제, 비빔발축제, 플라마켓 운영 등 관광과 연계한 공방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전통시장육성지원사무소는 현장의 소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상인과의 대화를 매일 시행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제20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남부시장 야시장 성공사례'가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민선6기 핵심공약사업이 현장시청 5호(전주푸드지원센터)로 마무리되었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민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제 기자

군산시, 어업피해 주범 해파리 220톤 제거

군산시가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해파리 제거작업으로 어업인들의 어업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전북 군산, 부안, 고창 해역에 보름달 물해파리가 대량 출현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7월 7일자로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시는 신속한 대응으로 해파리 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7월 12일부터 어선 9척을 동원하여 해파리 제거작업을 실시한 결과, 지난 24일까지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보름달 물해파리 총 220톤을 제거했다.

보름달 물해파리는 우리나라 해역에 가장 흔한 해파리로, 6~8월 사이

연안에 대량으로 출현하며 9월부터 개체량이 감소한다. 특히 올해는 높은 수온으로 예년보다 일찍 서해안 지역에 100㎡당 17개체가 출현했다.

시는 보름달 물해파리 제거사업 실시로 현재 개체량이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올해 폭염주의보 등 고수온으로 인하여 해파리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9월까지 제거작업을 계획하고 추가 수요예산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한 상태이다.

이준수 군산시 해양수산과장은 "어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파리 제거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벌초 시 예초기 사고 주의" 전북소방본부

추석 명절을 앞둔 성묘객들이 벌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매년 예초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예초기 작업 중 환자 발생 건수를 집계한 결과, 도내에서는 총 97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인명피해 50%는 추석 명절이

포함된 음력 8월 중에 발생해 벌초 중 예초기 사용이 큰 부상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예초기 칼날이 돌 등에 닿으면 날이 될 수 있으므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또 근처에 벌집이 있는지도 점검해 벌 쏘임 등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

제10회 전국장애인가요제 안내

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분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매년 장애인 가요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① 참가자 신청 : 등록 장애인 누구나 (16세이상)
- ② 신청방법 : 대중가요 1곡 선정하여 전화, 방문 팩스로 신청가능 (8월 31일까지)
- ③ 참고 : 도민누구나 관람가능, 행운권 추첨하여 상품 증정함

- * 일시 : 2016년 9월 3일 (토) 오후 4시 30분
- * 장소 :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 (남부시장 입구)
- * 주최 : 전북장애인 복지문제연구소
- * 후원 : 전라북도, 한국연예인협회 전북지부, 전북장애인 신문사



대회본부장: 김양욱



MC: 최현아(가수 겸 MC)

전북 장애인 복지문제 연구소

T. 286-6678 F. 287-6678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